KIA 헥터 "올해도 좋은 결과 있을 것"

올해 3년차…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서 페이스 끌어올리기 한창

"시즌 개막에 맞춰 준비 중…지금까지 해온대로 해야 할 것에 집중"

벌써 3년차다. KIA 헥터 노에시(31)는 올해도 변함 없이 KIA 유니폼을 입고 새 시즌을 맞이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보내고 있는 헥터는 아주 여유 있어 보인다. 올해로 3년차가 된 그는 자신의 루틴에 맞춰 천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칭스태프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지난 2년간 보여준 '성과'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헥터는 "한국에서 3년째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준비도 잘 되어간다. (불펜피칭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즌 개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에 맞춰 준비 중이다. 캠프에서 하루 하루 준비를 하다 보면 시즌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2016년 첫 해 31경기에서 206⅔이닝을 던지며 15승5패 평균자책점 3.40을 기록한 헥터는 지난해 30경기에서 201⅔이닝을 소화하며 20승5패 평균자책점 3.48로 활약했다. 2년 연속 30경기, 200이닝, 15승 이상 기록하며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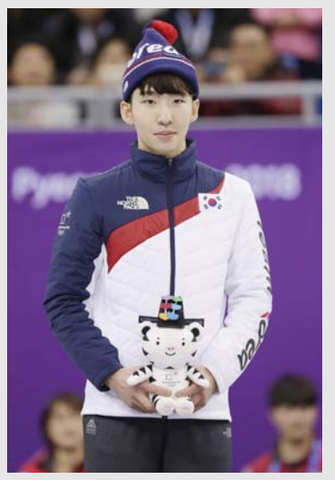
헥터는 "캠프 뿐만 아니라 시즌 중에도 항상 재밌는 분위기에서 운동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잘 대해주고 있다"며 즐거운 모습이다. 특히 2년 연속 200이닝에 따른 우려에 "작년 시즌 끝나고 충분히 쉬었다. 이닝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자신한 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준비한 비장의 무기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리그 최정상급 선발투수로 큰 성과를 냈다. 굳이 변화를 주는 대신 자신의 스타일대로 간다.

마지막으로 헥터는 "올해도 우리 팀은 좋다. 새롭게 보충된 전력도 있다. 팬들께서 지금처럼 많은 응원을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첫 金 임효준 "햄버거 먹고파"

"5000m 계주도 금메달 따고파…다관왕 욕심 버리고 즐길 것"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2·한국체대)이 "1등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예선을 앞두고는 많이 떨렸는데, 외국 선수들을 보니 생각보다 잘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준결승이 더 어렵다고 봤다. 코치님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결승에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말한대로 됐다."

준결승을 치르며 임효준은 '큰일났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고백했다. "너무 짜증이 났다. 중국 선수 3명에 (황)대헌이까지 있었다. 대헌이랑 떨어져 있으면 내 플레이만 하면 되는데 동료, 중국 선수까지 다 신경을 써야 했다"는 것이다.

결승에서는 작전이 따로 없었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면 오히려 꼬이더라. 경기 전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했다."

임효준은 또 "부상을 많이 당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주변에 도와준 분들이 많았다. 내 꿈은 명확했다. 평창만 바라보며 힘든 순간을 견뎠다"고 자부했다.

그동안 7차례나 자신을 수술대에 오르게 했던 부상을 이야기하던 임효준은 잠시 울먹이며 목소리가 잠겼다. 후배 황대헌이 결승에서 넘어져 메달을 따지 못한 것도 안타깝기만 하다.

"대헌이와 함께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래도 아직 500m, 1000m가 남아 있으니 끝까지 열심히 하자고 말해주고 싶다."

5000m 계주는 양보할 수 없지만, 다관왕 욕심은 버렸다.

"무엇보다 5000m 계주 금메달을 따고 싶다. 죽을 힘을 다해 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다관왕 관련 질문에는 "욕심을 버리고 즐기면서 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동안 못 먹었는데, 이제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다"며 지난했던 훈련과정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남겼다.

전남드래곤즈, 팬즈데이 겸한 출정식 '성료'

유상철 감독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것"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가 10일 오후 팬즈데이를 겸한 출정식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국회의원, 정현복 광양시장, 송재천 광양시의장, 김학동 광양제철 소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내빈들과 사전 접수를 받은 팬 20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 출정식에서는 올 시즌 그라운드를 누빌 전남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새로 선임된 주장 김영욱 선수에 대한 주장완장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2018년 전남의 캡틴 김영욱 선수는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시고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며 "지난해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 시즌은 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선수들 모두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상철 감독도 "선수단 모두가 전지훈련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 경기를 하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때도 있을것이다"면서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주는 지역민, 팬과 함께라면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하여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것이다. 항상 많은 응원부탁드리며,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또한 참석하신 내빈들도 "전남드래곤즈는 지역의 자랑이며 지역민의 자부심이다. 올 해는 승승장구하여 지역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는 한 해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부 행사인 팬즈데이 행사에서는 팬들과 선수들이 하나되어 공굴리기, 몸빼로 공받기, 눈가리고 선수 찾기, 4인 5각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통해 웃고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매 경기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 한 팬은 "올해 전남드래곤즈가 새롭게 시작한 팬들과 함께 하는 출정식과 팬즈데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서 기쁘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선수들과 함께 레크레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선수들 모두와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으며 즐거운 추억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매 홈경기마다 경기장을 찾아 열심히 응원하겠다. 선수들도 부상없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2018년 전남드래곤즈 화이팅!"을 외치며 행사참여 소감을 전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피겨 최다빈, 개인 최고점 '클린연기'

쇼트프로그램 65.73

최다빈(18)이 개인 최고점을 경신했다.

11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팀이벤트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5.73점(기술 37.16+예술 28.57)을 받았다.

클린 연기를 펼친 최다빈은 개인 최고점(62.66점)을 뛰어넘었다.

2그룹 첫 번째로 나온 최다빈은 '파파 캔 유 히어 미'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수 없이 성공했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 4),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 4)을 거쳐 연달아 단독 점프를 수행했다. 최다빈은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도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과제인 스텝시퀀스와 레이백 스핀에서도 레벨 4를 받았다.

실수 없이 최고의 연기를 한 최다빈은 경기 후 미소를 지으며 주목을 불끈 쥐었다.

최다빈은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서 10위에 오르며 평창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이 팀이벤트에도 출전하면서 이날 경기에 나섰다.

뉴시스

기성용 중거리 슛, 시즌 첫 골이 결승골…'팀 내 최고평점+MVP'

스완지시티, 번리와 홈경기서 1-0 승리

기성용이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게다가 결승골이다.

기성용의 스완지는 1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번리와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기성용은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36분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다.

스완지의 카일 노턴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공을 내줬다. 조던 아예우는 달려오던 기성용을 보고 그대로 흘려줬다. 기성용은 한 번의 터치로 볼을 잡아놓은 뒤 바로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때려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초반부터 기성용의 움직임은 예리했다. 전반 20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수비수 한 명을 제치며 슛으로 연결했다. 번리 수비수 찰리 테일러의 슬라이딩에 막혔지만 움직임이 돋보였다. 후반 12분에는 먼 거리에서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향하는 날카로운 프리킥을 쏘기도 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팀에서 가장 높은 평점 8을 기성용에게 줬다. 기성용은 경기 최우수선수(MOM)로도 선정됐다.

스완지는 지난달 토트넘전 패배 이후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며 리그 15위(승점 27·7승6무14패)로 올라섰다. 시즌 후반 살아나고 있는 스완지는 17일 셰필드 웬즈데이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을 벌인다.

뉴시스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롯데, 최준석과 계약 후 NC로 조건無 트레이드

롯데 자이언츠가 최준석(35)과 계약 후 NC로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롯데는 9일 FA 최준석과 연봉 5,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BO 승인 절차에 따라 11일 NC 다이노스에 아무런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2018 시즌부터 최준석은 NC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NC 유영준 단장은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경험과 장타력을 갖춘 선수라는 감독님의 요청이 있었다. 허무하게 야구를 끝낼 수 없다는 절실함을 최 선수를 만나 느꼈다. 선수가 그 마음까지 보태 팀이 요구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은 "경기를 읽는 노련미가 있는 선수여서 감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층 다양해졌다.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며 팀 워크가 중요한 우리 팀 컬러에 잘 적응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최준석은 "조건 없이 미래를 열어준 롯데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부족한 저를 받아준 NC의 선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석은 이번 주 중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으로 건너가 NC 선수단의 전지훈련에 합류한다.